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 워크북 구성 및 활용방법

1 구성

-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6가지 청렴덕목을 바탕으로 6개의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워크북은 공정, 약속, 책임, 배려, 절제, 정직 각 덕목에 대해 알아보기, 동화감상, 활동하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알아보기>에서는 청렴덕목에 대한 정의, 청렴덕목에 대한 교사와 유아의 생각을 나누고 관련 도서를 안내함
- <동화감상>에서는 동화를 통해 청렴 덕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한 창작동화를 덕목별로 제시하고, 자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QR코드와 URL을 함께 제공함
- <활동하기>에서는 동화를 감상한 후 유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을 2가지 제안함

2 활용방법

-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는 유아기부터 청렴의 덕목을 놀이, 활동, 일상생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음
- 6가지 청렴덕목의 동화를 통해 유아들이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6가지 청렴덕목의 창작동화로 극놀이, 노래를 통한 음률활동, 청렴 표어 만들기, 청렴 포스터 만들기 등 유아의 흥미를 존중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음

3 청렴덕목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부터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흥미를 가지는 ‘동화’를 통해 6가지 청렴덕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일상생활과 놀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와 교사를 지원한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CONTENTS



part1. 알아보기

-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9
- 공정에 대한 생각 모으기 9
- 공정과 관련된 도서 10

part2. 동화감상

- 반짝반짝 금별이 은별이 1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어떤 상자가 필요할까요? 14
- 활동2: 공평하게 나누어요 15



part1. 알아보기

-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19
- 약속에 대한 생각 모으기 19
- 약속과 관련된 도서 20

part2. 동화감상

- 루루와 까비깨비 마을의 대소동 2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청렴 픽셀아트 24
- 활동2: 우리 반 약속 방법 정하기 25



part1. 알아보기

- 절제란 무엇일까요? 29
- 절제에 대한 생각 모으기 29
- 절제와 관련된 도서 30

part2. 동화감상

- 초록 기린이 3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사과를 나눠주세요 34
- 활동2: 청렴 OX 퀴즈 35



4

정 직

part1. 알아보기

-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39
- 정직에 대한 생각 모으기 39
- 정직과 관련된 도서 40

part2. 동화감상

- 빙글빙글 울렁울렁 마법주문 4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정직한 내 마음 44
- 활동2: 우리 반 정직왕 45



5

배 려

part1. 알아보기

- 배려란 무엇일까요? 49
- 배려에 대한 생각 모으기 49
- 배려와 관련된 도서 50

part2. 동화감상

- 애기똥풀 병원 5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애기똥풀에게 주고 싶어요 54
- 활동2: 배려하는 마음 고운 마음 55



6

책 임

part1. 알아보기

-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59
- 책임에 대한 생각 모으기 59
- 책임과 관련된 도서 60

part2. 동화감상

- 존스야 댐을 떠나지마 61

part3. 활동하기

- 활동1: 존스야 댐을 지켜줘 64
- 활동2: 책임을 실천해요 65



01

공정





Part 1

알아보기

1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치우치지 않는 공정”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어떤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생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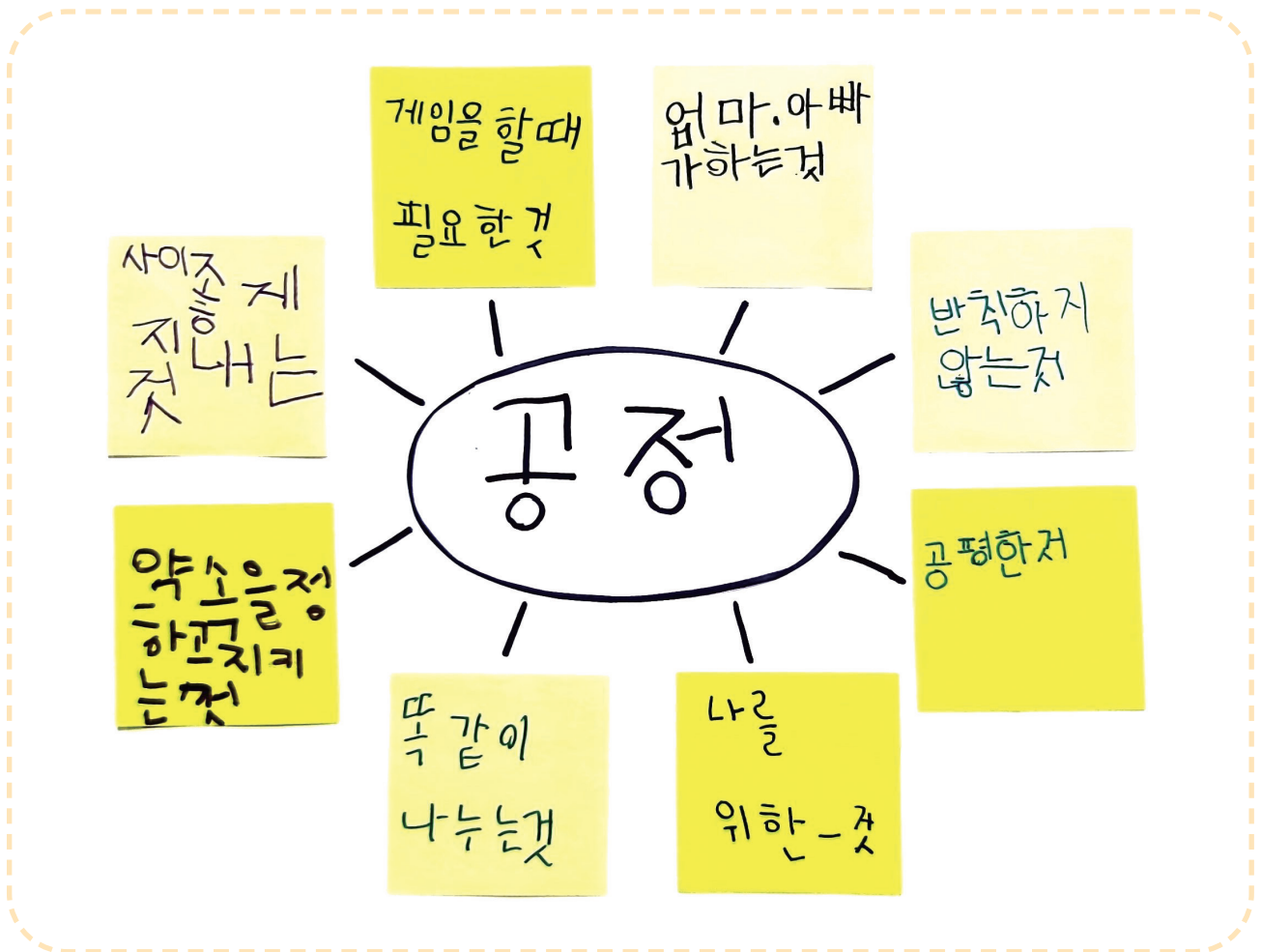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공정에 대한 생각 모으기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공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필요로 하는 만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3: 상황에 따라 공정의 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교사4: 똑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 교사5: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6: 공정하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유아들의 생각 •



3 공정과 관련된 도서



- 제목: 칭찬 사탕 대소동
- 출판사: 니케주니어
- 글/그림: 최은영/이현정
- 내용: 선생님이 나눠주는 칭찬 사탕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공정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



Part 2

동화감상 (인형극동화)



- 정경애

높고 높은 밤하늘 구름 방석 위에서 작은 별들이 대왕별님 품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대왕별님! 저는 숲속 캄캄한 밤하늘을 비추기 싫어요. 은별이처럼 송이네 마을을 비추고 싶어요.”

“아냐 내가 비출거야. 송이는 노래도 불러주고 그 마을에는 예쁜 꽃들도 많아.”

금별이와 은별이는 서로 송이네 마을을 비출거라고 다투었어요.

“허허. 지구마을 친구들은 숲에서도, 놀이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너희들을 바라보며 행복해 한단다.”

“그래도 난 예쁜 꽃도 있고 노래도 불러주는 송이네 마을을 비추고 싶어요.”

“지구마을 친구들이 밤하늘을 쳐다보며 우리에게 손짓하고 노래한다구요?”

“그렇지, 그러니까 금별이와 은별이도 지구마을 친구들에게 별빛을 골고루 비추어야지.”

“그래도 나는 싫는데, 나도 송이네 마을을 비추고 싶는데...”

금별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어요.

“안되겠구나, 송이네 마을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자꾸나.”

대왕별님은 예쁜 요술 거울을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빛나유치원으로 뽀로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송이네 마을 빛나유치원에는 친구들이 새 게임기를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아냐,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먼저 할거야!”

“아냐, 아냐. 내가 게임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제일 먼저 게임기를 발견한 민이와 힘이 센 철이, 게임을 잘하는 준이가 서로 먼저라며 우기고 있었어요.

“애들아 이러다가 게임기 부서지겠다.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재미있게 놀이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지켜보시던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음…. 우리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할까?”

친구들을 바라보며 민이가 말했어요.

“좋아, 좋아!”

“가위 바위 보! 와! 내가 이겼다.”

제일 먼저 이긴 철이가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어요.

“언제까지 하지?”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애들아, 저기 있는 모래시계로 하자.”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좋아, 좋아! 한 사람씩 모래시계가 다 내려갈 때까지 하는 거다.”

빛나유치원 친구들은 게임기를 사용할 순서와 시간을 정한 뒤 신나게 놀이를 했어요.

“야호! 내가 게임에서 이겼어. 이제 민이 네 차례야.”

철이가 기분 좋게 민이에게 게임기를 건네주었어요.

“순서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모두 차례대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준이가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신나는 놀이 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시간이 돌아왔어요.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오늘 간식은 별모양 마카롱이에요. 철이가 오늘은 간식 도우미니까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줄래요?”

“네, 선생님. 우와! 별모양 마카롱 예쁘다.”

신이 난 철이가 별모양 마카롱을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송이에게는 마카롱을 두 개 주고 자기도 두 개를 가져갔어요.

“어, 안돼! 철이야. 난 한 개만 먹을래. 그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잖아!”

“송이야 괜찮아. 이건 다 나눠주고 남는 거야.”

“그래도 안돼! 다른 친구들은 하나씩 먹는데 우린 두 개 먹으면 공평하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던 철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히히히, 송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친구들도 하나.”

빛나유치원 친구들은 별모양 마카롱을 하나씩 들고 반짝반짝 흔들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달콤한 마카롱으로 행복해진 빛나유치원 친구들은 작은 별 노래를 신나게 불렀어요.

요술거울로 빛나유치원을 바라보고 있던 금별이와 은별이에게도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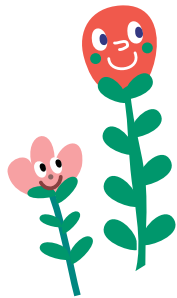
“우와! 빛나유치원 친구들은 게임기도 간식도 무엇이든 공평하게 의논해서 하네요.”

“우리 작은 별들도 빛나유치원 친구들처럼 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지구마을에 골고루 별빛을 뿌려주면 어떨까?”

“좋아, 좋아! 역시 은별이는 멋진 생각을 잘한다니까! 히히히.”

“허허허, 작은 별들이 지구마을에 골고루 별빛을 뿌려주면 온 지구가 행복해지겠구나.”

밤이 되자 금별이는 송이네 마을이 있는 동쪽, 은별이는 서쪽, 다른 작은 별 친구들은 북쪽과 남쪽 마을을 골고루 비추었어요. 그날 밤 지구마을 친구들의 행복한 얼굴이 별빛에 아름답게 물들었답니다.



♪ **공정 공평 올바름** ♪ (노래: 작은 별 개사)

1절	2절
공정 공평 올바름 너도 나도 지키자 맛난 간식 먹을 때 재미있는 놀이도 공정 공평 올바름 용기 내어 지키자	공정 공평 올바름 우리 모두 지키자 정리 정돈 할 때도 게임 놀이 할 때도 공정 공평 올바름 내가 먼저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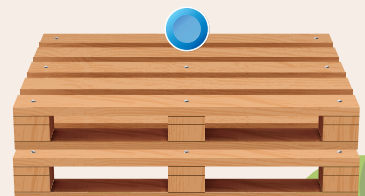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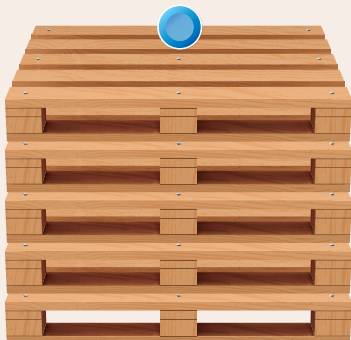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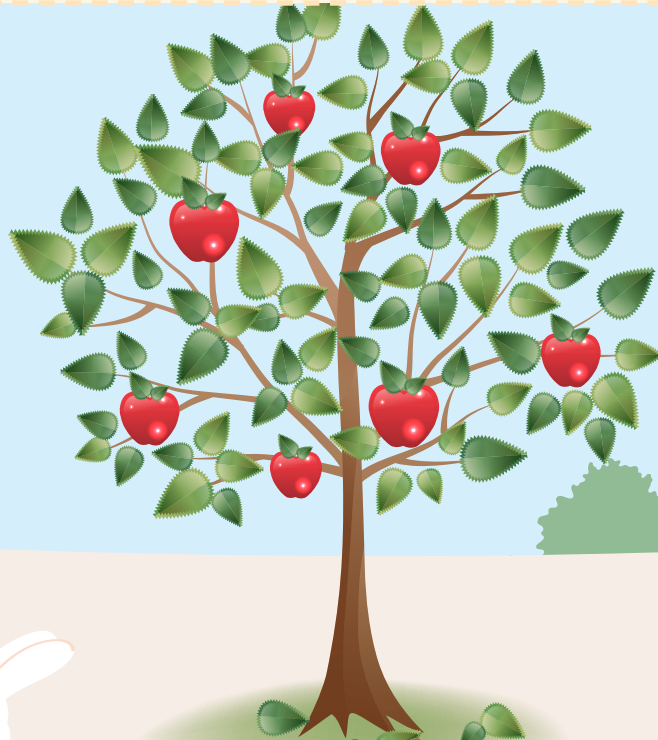
| <https://youtu.be/pJKdkXKIAHE> |

활동 1

어떤 상자가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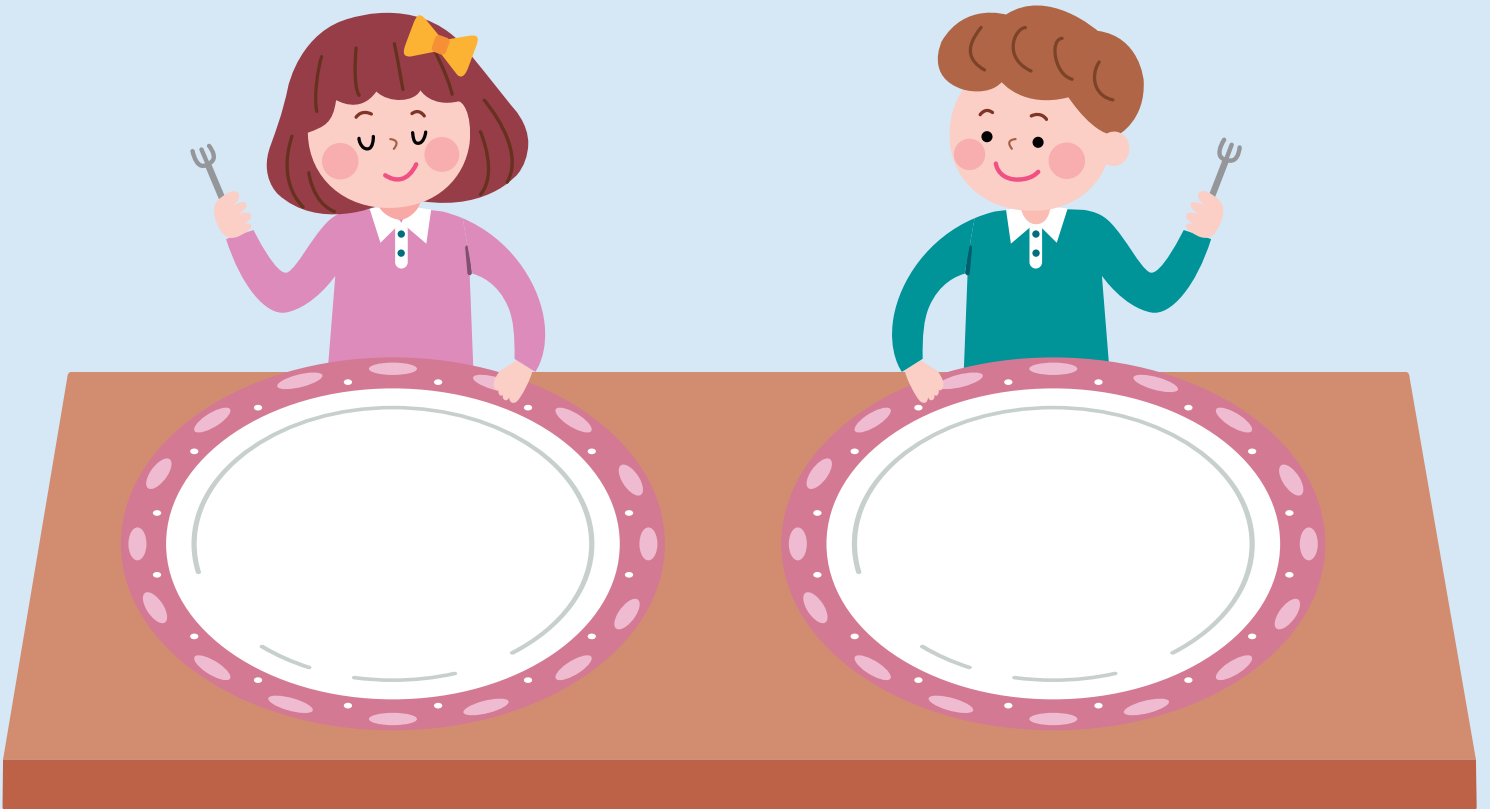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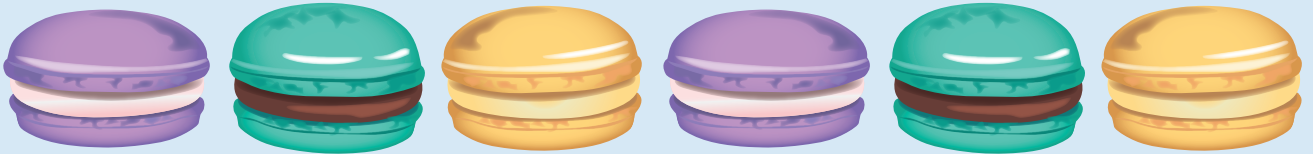
공정

기린, 토끼, 다람쥐 친구들이 사과를 따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너무 높아 밟고 올라갈 상자가 필요하네요.
어떤 높이의 상자를 선택해야 모두 공정하게 사과를 따 먹을 수 있을까요?



활동 2 **공평하게 나누어요** **공정**

오늘의 간식은 마카롱이에요.
6개의 마카롱을 몇 개씩 나누어 먹어야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요?





02

약속





Part 1

알아보기

1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지키는 약속”

약속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정하여 두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과의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약속을 넘어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은 준법의 차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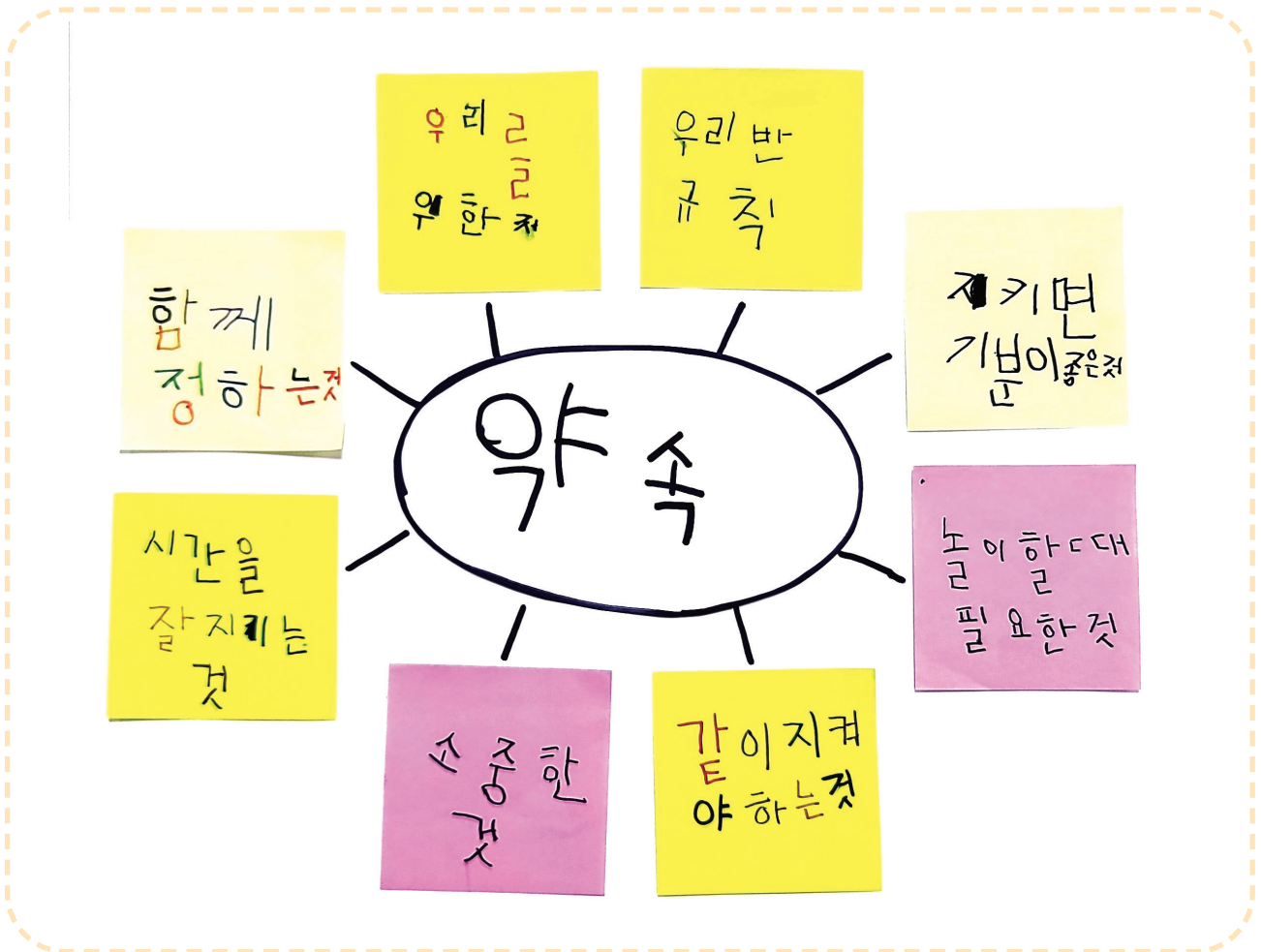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약속에 대한 생각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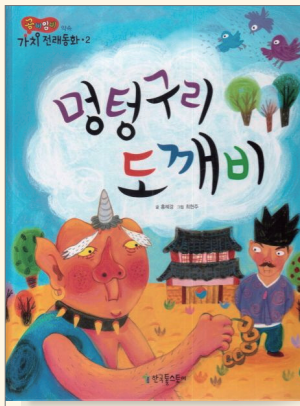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모두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3: 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 교사4: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교사5: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회질서를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요.
- 교사6: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유아들의 생각 ●



3 약속과 관련된 도서



- 제목: 명탕구리 도깨비
- 출판사: 한국톨스토이
- 글/그림: 홍혜경/최현주
- 내용: 명탕구리 도깨비가 나무꾼에게 돈을 빌리며 다음 날 꼭 갚겠다고 하여 약속의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



Part 2

동화감상 (인형극동화)



루루와 까비깨비 마음의 대소동

- 조영란

까비깨비 마을의 울창한 숲속 입구에는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나무가 있었어요. 마을의 질서를 지켜 주는 고마운 나무지요.

할아버지 나무에는 양보, 배려, 정직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여러분! 새로운 열매 ‘약속’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까비깨비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약속 열매를 달면서 할아버지 나무가 말했어요.

“그래요, 새로운 열매 ‘약속’을 달아 주셨으니 우리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까비깨비 마을을 만들어요.” 토순이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루루야, 유치원 끝나고 나랑 찹찹카 타고 놀까? 우리 아빠가 어제 찹찹카 사 오셨거든.”

“우와! 신난다. 다람아 그럼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루루와 다람이는 3시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세 시가 되었는데 루루는 어디에 있지?”

놀이터를 둘러 보았지만 루루가 보이지 않았어요.

“헉!헉!헉! 다람아 많이 기다렸지? 아유 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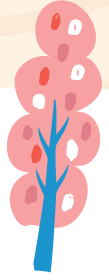
루루는 세 시 십 분이 되어서야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루루야, 네가 십 분이나 늦게 와서 기다리기 힘들었어.”

“다람아 미안해. 다음부터 약속 잘 지킬게.”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찹찹카 네 바퀴씩 타기로 할까?”

다람이와 루루는 네 바퀴씩 타기로 약속했고 서로 양보하면서 즐겁게 놀았답니다.



썩썩카를 더 타고 싶었지만 꼭 참으려니 루루는 약속이 귀찮아졌어요.

‘더 타고 싶은데 참아야 한다니, 이건 약속 열매 때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루는 주무시는 할아버지 나무의 약속 열매를 따버렸어요.

약속 열매가 없어진 까비깨비 마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보세요. 사슴이 아빠, 아직까지 회사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각이에요.”

마을의 소식을 담당하는 토순이 아주머니가 사슴 아빠를 보고 외쳤어요.

“아이쿠, 내가 지각을 하다니.”

사슴 아빠는 회사를 향해서 긴 다리로 경중경중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곰곰이 엄마, 여우네 집에서 세탁 옷이 안 온다고 연락 왔어요.”

“어머나! 여우네가 외출한다고 했지? 어떡하지?”

곰곰이 엄마는 후다닥 세탁 옷을 배달했지요.

“여보세요. 까비깨비 유치원에 간식이 안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구요.”

“어? 벌써 간식시간이라니? 제가 빨리 간다고 전해 주세요.”

너구리 삼촌은 간식 트럭에 간식을 싣고 썩 달려갔지요.

마을이 엉망이 되자 동물들은 약속 열매 다시 만들기 위해 할아버지 나무 아래 모였어요.

“자, 여러분! 마을에 약속이 없어지니 어떤지 말해보세요.”

“오늘 지각을 해서 사장님께 죄송하고 아주 곤란했어요.”

사슴이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오늘 세탁 옷이 안 와서 외출을 못할 뻔 했어요.”

여우네도 울상이 되어 말했지요.

“죄송해요. 제가 약속을 지키는 게 싫어서 열매를 따버렸어요. 그런데 마을이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어요. 간식도 안 오고 배도 많이 고했어요.”

“루루야, 너의 욕심으로 마을의 질서가 없어지고 모두가 힘들어졌으니 이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느냐?”

할아버지 나무가 꾸짖듯 말씀하셨어요.

“루루가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루루도 약속을 잘 지킬 겁니다.”

마을 동물들이 모두 루루를 응원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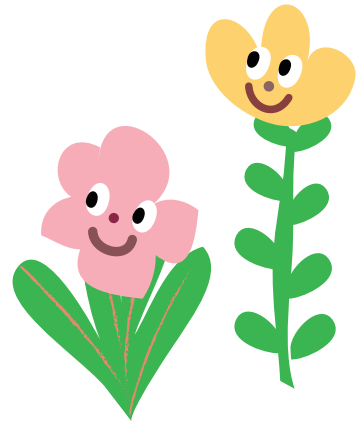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루루가 지키는 약속을 보고 생각해보마.”

“네, 할아버지. 저 이제 약속 잘 지킬게요.”

루루와 토순이는 약속 시간 지키기, 씽씽카 네 바퀴만 타기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장난감 나눠 쓰기, 차례차례 줄을 서서 그네 타기, 미끄럼틀 타기 등 선생님과 한 약속도 잘 지켰지요.

‘아모카 사모카, 바라바라 얍!’

루루의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시고 할아버지 나무가 주문을 외우자 약속 열매가 짠~ 하고 달렸답니다. 이제 까비깨비 마을은 평온해졌고 루루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 대장이 되었답니다.



♪ 약속은 소중한 ♪ (노래: 꼭꼭 약속해 개사)

1절	2절
친구와 약속 선생님 약속 부모님과 한 약속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약속은 질서 약속은 규칙 우리 모두 지켜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 <https://youtu.be/i91mLoSaJ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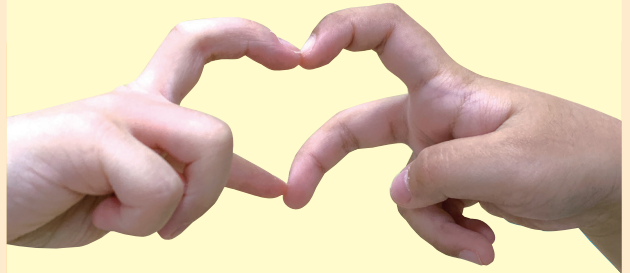
활동 2 우리 반 약속 방법 정하기 **약속**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약속을 할 때는 꼭 새끼손가락을 걸고 해야할까요?
우리 반만의 특별한 약속 방법을 만들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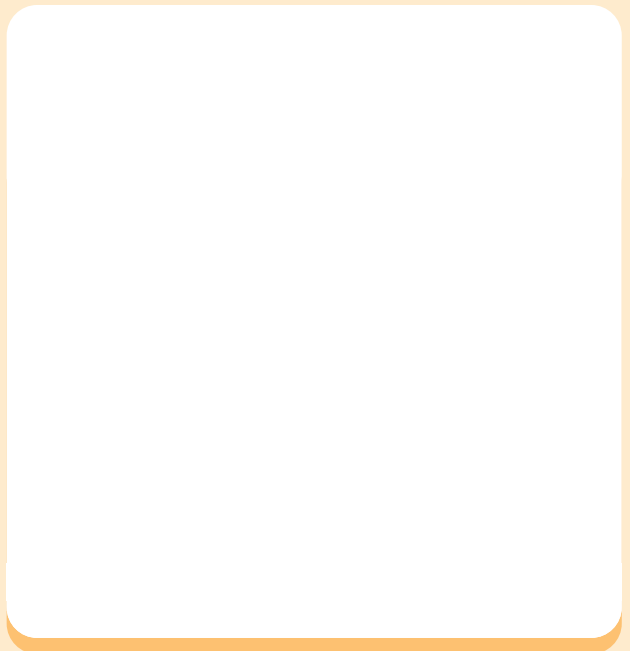
새끼손가락 약속



하트 약속



한 손가락 약속





03

절제





Part 1

알아보기

1 절제란 무엇일까요?

“욕심을 버리는 절제”

절제는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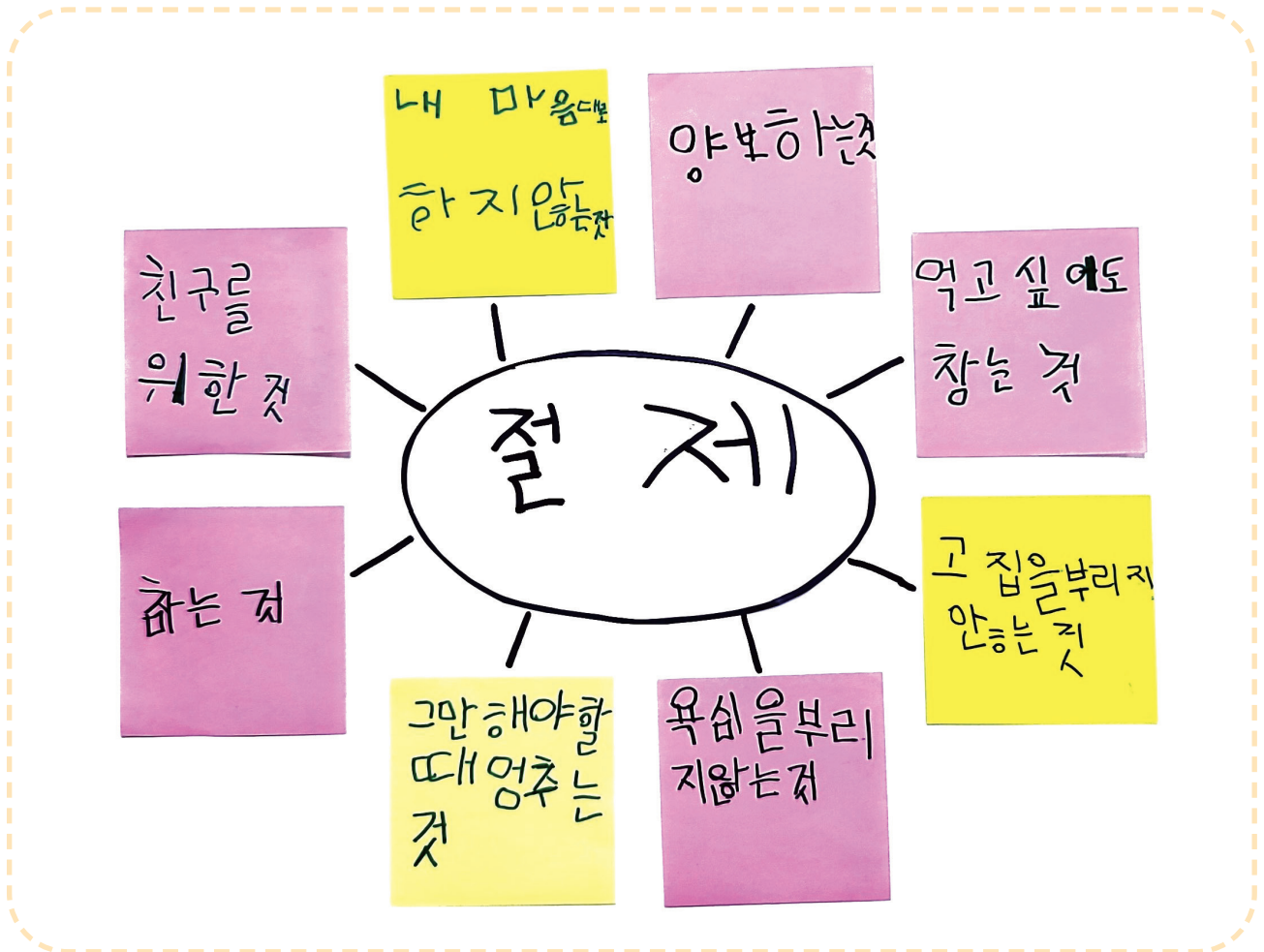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절제에 대한 생각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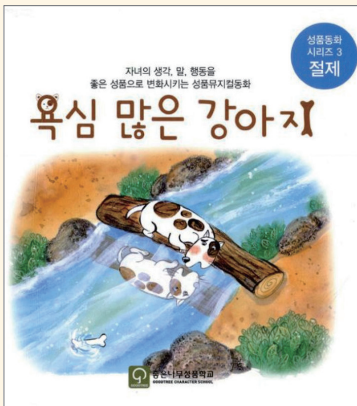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절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3: 양보하는 것인 것 같아요.
- 교사4: 적당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5: 화가 나는 감정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사6: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을 갖고 싶어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유아들의 생각 •



3 절제와 관련된 도서



- 제목: 욕심 많은 강아지
- 출판사: 좋은나무성품학교
- 글/그림: 좋은나무성품학교 편집부
- 내용: 뼈다귀를 물고 강가를 지나가던 강아지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뼈다귀를 탐내어 잡으려다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도 놓치게 되는 이야기



Part 2

동화감상 (레고동화)



- 정다인

노랑 줄무늬 기린이는 향긋한 사과 향기에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아직 익지 않은 초록 사과가 보였어요.

“치, 사과가 아직도 안 익었네. 저 사과는 느낌보 사과야!”

매일 아침 기린이는 사과가 커져서 빨갱게 익기를 기다렸어요.

점심때가 되자 기린이는 배가 고파졌어요.

“아, 배고파. 사과 하나만 따먹으면 친구들도 모르겠지? 히히히.”

기린이는 목을 쪽 빼고 사과 하나를 따서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사과나무 할머니가 말했어요.

“기린아, 안돼! 기다리지 못하고 익지 않은 초록 사과를 따 먹으면 큰일 난단다.”

“사과나무 할머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사과나무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기린이는 아직 익지 않은 초록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시큼했지만 배가 고파서 우걱우걱 초록 사과를 먹었어요.

“어, 시큼하지만 먹을 수 있겠는데? 내일도 따 먹어야겠는걸.”

다음 날 기린이는 또 사과나무 앞에 가서 목을 길게 쪽 뺐어요. 그때 입이 큰 하마가 달려왔어요.

“멈춰! 멈춰! 너 지금 초록 사과 따먹으려는 거야? 사과가 빨갱게 익으면 숲속 친구들이랑 나눠 먹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몰라, 몰라! 지금 먹고 싶은데 익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기린이는 초록 사과 다섯 개를 따서 집으로 휙 달려가 버렸어요.

다음 날 사과나무 앞에는 하마와 양, 돼지가 기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린이가 익지도 않았는데 사과를 다 따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사과를 지켜야 해.”

숲속 친구들은 기린이가 오지 못하도록 사과나무 주위에 빙 둘러서서 섰어요.

“이상하네? 기린이가 왜 나타나지 않지?”

“그러게. 오늘은 우리가 올 줄 알고 안 오는가 봐.”

숲속 친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느덧 일주일 이 지나서 사과나무에는 빨갭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숲속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나서 사과나무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야호! 사과가 정말 주렁주렁 많이 열렸네. 빨갭게 익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런데 기린이가 왜 안 보이지? 놀이터에도 계속 안 나오고 이상해.”

“그러게, 정말 이상해. 기린이가 있어야 사과를 딸 수 있을 텐데.”

“우리 기린이네 집에 가서 기린이를 데리고 오자.”

숲속 친구들은 모두 기린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기린이네 집은 문도 잠겨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큰소리로 기린이를 불렀어요.

“기린아, 기린아! 사과가 빨갭게 익었어. 어서 따서 나눠 먹자!”

“기린아, 기린아! 어서 나와서 사과 좀 따 줘!”

그때 기린이네 집 대문이 삐뚤히 열리더니 기린이의 꼬리만 밖으로 쭉 나왔어요.

“싫어. 나는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기린아, 키 큰 네가 있어야 사과를 딸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밖으로 나와.”

친구들은 대문 밖으로 삐죽이 나온 기린이의 꼬리를 잡았어요. 돼지의 뒤에 양, 양의 뒤에 하마가 붙어서 기린이를 힘껏 끌어당겼어요.

“영차, 영차, 영차!”

친구들이 힘을 모아 기린이를 끌어당기자 기린이의 몸이 대문 밖으로 휙 끌려 나왔어요.

우당탕 뒤로 넘어진 친구들은 기린이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 기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얼굴이 초록색이야? 꼭 초록 사과 같아.”

“영영영, 익지 않은 초록 사과를 먹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

“정말 큰 일이야. 초록 기린이가 되어버렸어.”

사과나무 할머니는 기린이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에구구, 저런 저런. 그러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니.”

시무룩한 기린이를 보고 숲속 친구들은 사과를 따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마가 양을

보고 말했어요.

“양아, 내 목에 올라타. 그리고 돼지는 양의 목에 올라타서 우리가 사과를 따 보자.”

“그래, 키 큰 기린이 대신 우리가 함께 사과를 따보자.”

“앗! 아야! 아야! 아야!”

돼지와 양과 하마가 목마를 타고 사과를 따려다 차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모두 엉덩방아를 찧어서 울상이 되었어요.

사과나무 할머니가 긴 가지로 기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기린아, 먹고 싶어도 꼭 참고 기다린 친구들을 위해서 빨간 사과를 따 주면 안 되겠니?”

“네, 할머니. 친구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간 사과를 따 줄게.”

기린이는 초록 얼굴을 높이 들어 친구들에게 빨간 사과를 따 주었어요.

“사과나무 할머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완전 최고예요.”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기린이에게 사과나무 할머니가 말했어요.

“기린아, 너도 잘 익은 빨간 사과를 한입 먹어보렴.”

“정말요? 사과나무 할머니 저도 먹어도 돼요?”

“그럼, 그럼. 어서 먹어보렴.”

기린이는 빨갭게 익은 사과를 맛있게 한입 먹었어요. 달콤한 사과즙이 기린이의 입안 가득 고였어요. 기린이는 사과나무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사과나무 할머니, 빨갭게 익은 사과는 시큼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그때 사과를 먹으며 활짝 웃는 기린이를 보고 친구들이 말했어요.

“기린아! 기린아! 거울 좀 봐. 네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와! 정말이네? 이젠 초록 기린이가 아니야.”

“멋진 노랑 줄무늬 기린이로 다시 돌아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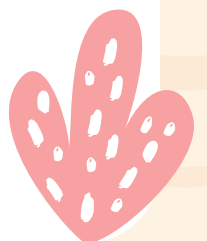
기린이는 호주머니에 있던 거울을 꺼내 보고 기뻐서 경중경중 춤을 추었어요.

“야호! 야호! 나는 다시 노랑 줄무늬 기린이가 되었어. 나도 이제 너희들처럼 기다릴 줄 아는 친구가 될래. 먹고 싶어도 조금 기다리고 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하하호호히히, 멋진 노랑 줄무늬 기린이 화이팅!”

기린이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과나무 할머니를 빙빙 돌며 계속 춤을 추었어요. 숲속 친구들은 기린이를 보고 사과처럼 얼굴이 빨개지도록 웃었습니다.

| <https://youtu.be/qzrRwNHZNw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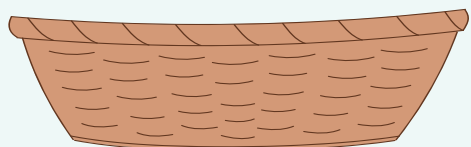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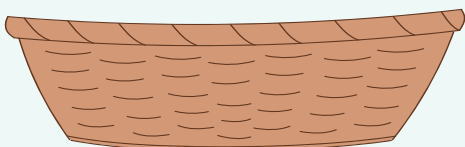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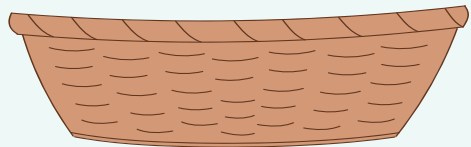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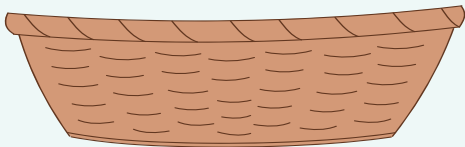
활동 1

사과를 나눠주세요

절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친구들이 모두 사과를 나눠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활동 2

청렴 OX 퀴즈 **절제**



절제하는 행동이 맞으면 O를, 틀리면 X를 적어보세요.



정해진 시간을 지켜 미디어 보기



맛있는 간식을 혼자 다 먹기



필요한 만큼 물을 사용하기



저녁 시간에 집에서 뛰어 다니기



04

정직





Part 1

알아보기

1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을 위한 정직”

정직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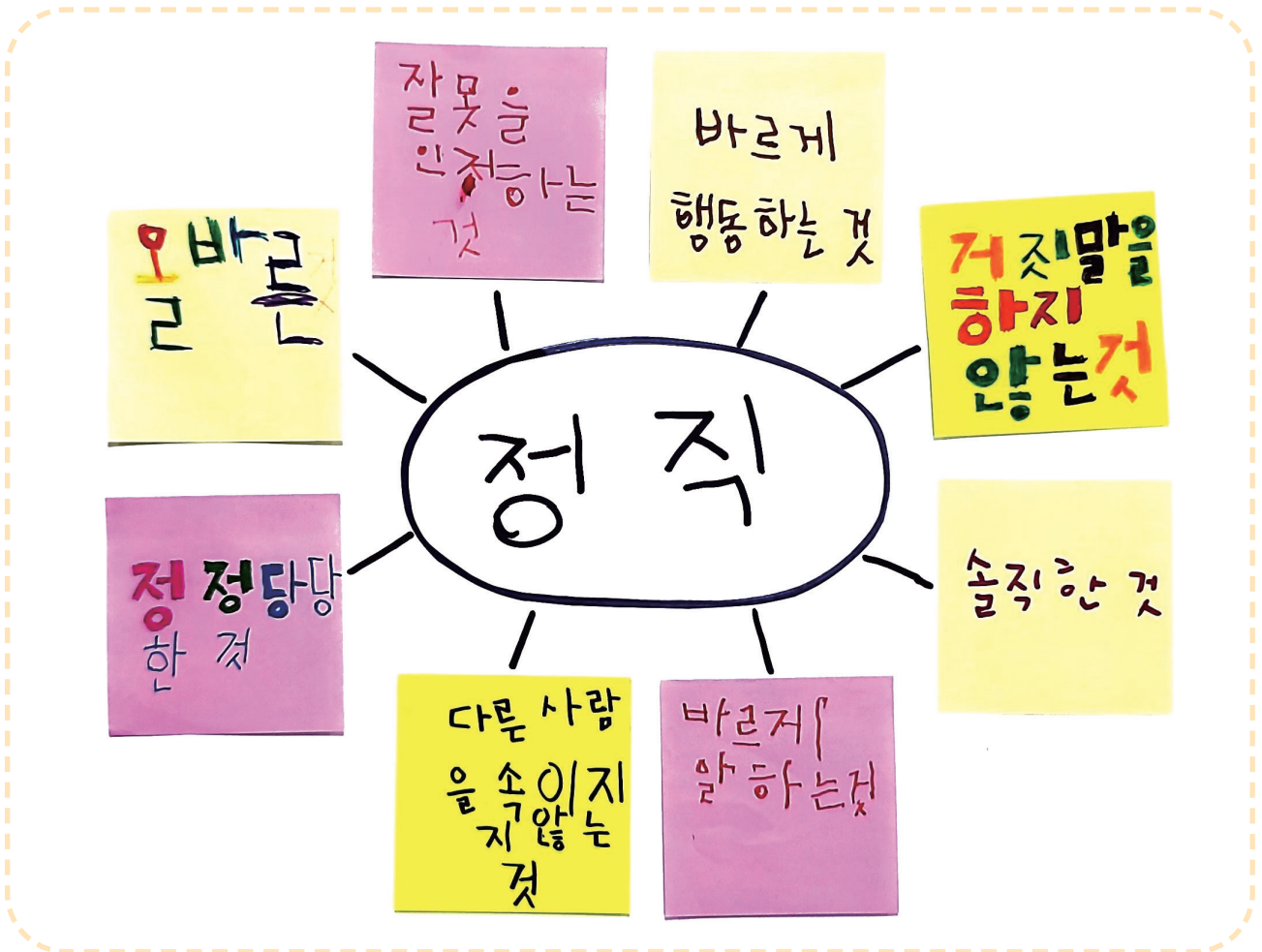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정직에 대한 생각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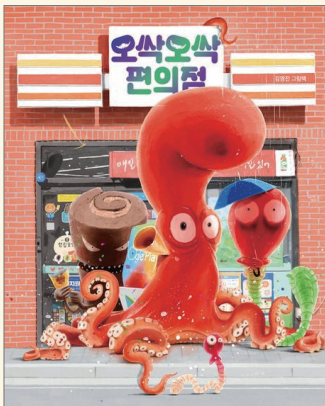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정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거짓없는 행동과 말이라고 생각해요.
- 교사3: 한자 그대로 바르고 곧은 마음이 아닐까요?
- 교사4: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사5: 법, 규칙과 같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 유아들의 생각 •



3 정직과 관련된 도서



- 제목: 오삭오삭 편의점
- 출판사: 김영진
- 글/그림: 책 읽는 곰
- 내용: 정직하지 못한 친구들이 신기한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내용



Part 2

동화감상 (미술동화)



- 정다인

서준이는 가방을 흔들며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서준이는 교실로 얼른 들어갔어요. 뽀록이를 제일 먼저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뽀록이는 희망반에 새로 온 마법 로봇이에요.

“서준이, 어서 와요. 뽀비비비.”

뽀록이가 문 앞에서 긴팔을 들어 올려 인사를 했어요.

“야호! 내가 일등이야. 뽀록아, 잘 있었어? 너랑 놀고 싶어서 일찍 왔어.”

그때 교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뽀록아, 뽀록아. 어디 있어? 너 보려고 오늘 일찍 일어나서 왔어.”

예인이가 헐레벌떡 교실 문을 열었어요.

“어, 서준이가 먼저 왔네. 치, 내가 뽀록이와 제일 먼저 인사하고 싶었는데...”

“서준이가 예인이보다 먼저 왔어요. 뽀비비비 서준이가 일등이에요. 뽀비비비.”

뽀록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어요.

서준이보다 늦게 와서 잔뜩 새침해진 예인이가 놀리듯 말했어요.

“치, 나는 주말에 엄마 아빠랑 워터파크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신나게 놀았어. 넌 워터파크도 못 가봤지? 메롱!”

“나는 주말에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갔었거든. 거기서 회전목마도 타고 엄청 신나게 놀았거든. 메롱, 메롱!”

서준이와 예인이는 서로 입을 삐죽거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뽀록이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니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삐리삐리삐, 삐리삐리삐.”

그때 교실 문 밖에서 선생님이 뽀록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뽀록아, 멈춰! 함부로 마법 주문을 외우면 큰일 나.”

뽀록이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주문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삐리삐리삐, 삐리삐리삐. 진실의 마법아 돌아라.”

“삐리삐리삐, 삐리삐리삐. 진실의 마법아 돌아라.”

뽀록이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회전목마처럼 돌기 시작했어요. 놀란 서준이는 책상을 짝 잡고 매달렸어요. 예인이의 가방이 휘익 구석으로 날아갔어요. 교실은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울렁울렁 돌았어요. 그리고 워터파크처럼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장난감들이 소용돌이를 치며 뒤죽박죽 돌았어요.

“뽀록아, 갑자기 왜 교실이 빙글빙글 도는 거야?”

“갑자기 교실에 왜 물이 차오르지? 뽀록이 너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서준이와 예인이는 뽀록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래도 뽀록이는 긴 팔다리를 흔들며 마법 주문을 계속 외웠어요.

“선생님, 뽀록이의 마법 주문을 멈춰주세요!”

“어머머, 이를 어떻게? 큰일이구나! 뽀록아 마법 주문을 어서 멈춰!”

선생님이 뽀록이에게 크게 말해도 마법 주문은 멈추지 않았어요.

막 유치원으로 들어온 척척박사 현이가 빙글빙글 도는 교실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뽀록이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했나 봐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 마법 주문이 멈출 수 있어요.”

그제서야 서준이는 자신이 한 거짓말을 떠올렸어요. 서준이는 놀이공원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뽀록아! 멈춰! 나는 주말에 집에서 퍼즐놀이 했어. 놀이공원에도 안 가고 회전목마도 타지 않았어!”

서준이가 큰소리로 진실을 말하자 빙글빙글 돌던 교실이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레고블럭과 장난감들이 휘리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고 무릎 위에서 찰랑찰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인이의 가방이 물에 둥둥 떠다녔어요.

“어, 뽀록아. 교실은 멈추었는데 왜 물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때 예인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엄마 아빠랑 워터파크 안 갔어. 서준이가 일 등으로 와서 심술이 나서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그러자 무릎까지 차올랐던 물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장난감들은 어느새 바짝 말라 있었어요.

“야호! 교실이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서준이와 예인이는 손을 잡고 짹짹 뛰었어요. 그제야 겨우 선생님과 척척박사 현이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현이가 서준이와 예인이를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 거짓말 세상의 워터파크와 회전목마를 타니까 기분 어때?”

“좋았어. 아니, 아니. 너무 어지럽고 힘들었어.”

서준이가 ‘좋았어’라고 말하려던 자기의 입을 얼른 막았어요.

“호호호, 우리 서준이와 예인이가 거짓말 때문에 아주 혼이 났구나.”

예인이와 서준이가 서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을래요. 자꾸 거짓말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 <https://youtu.be/6XsyE0n8V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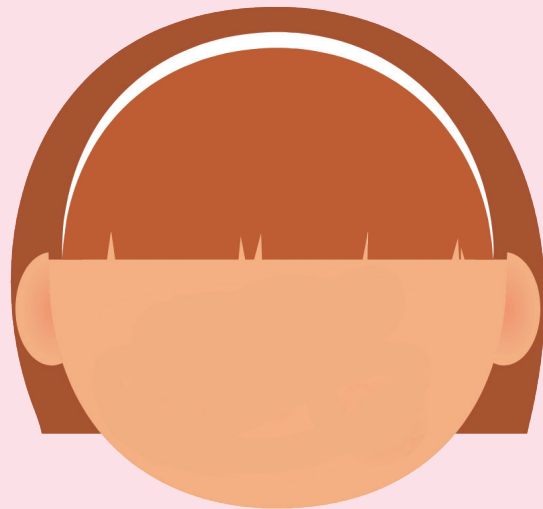
활동 1

정직한 내 마음 정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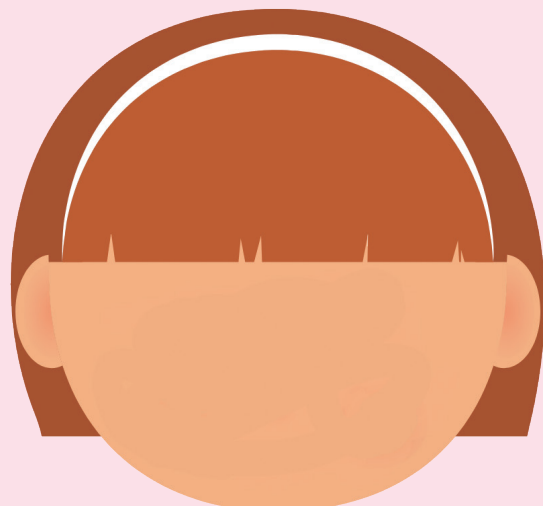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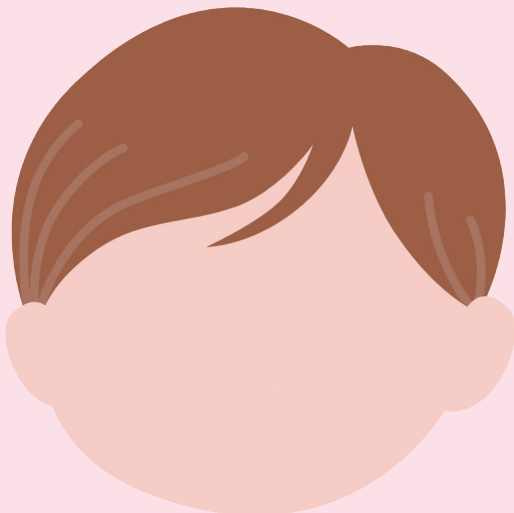


거짓말을 했을 때와 정직하게 말했을 때 서준이와 예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의 표정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 거짓말을 한 서준이와 예인이 ♥



♥ 정직하게 말한 서준이와 예인이 ♥



활동 2

우리 반 정직왕 정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친구를 속이지 않는 우리 반 정직왕은 누구일까요?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정직왕이 되어 보기로 해요!



우리 반 정직왕

이름: _____

위 어린이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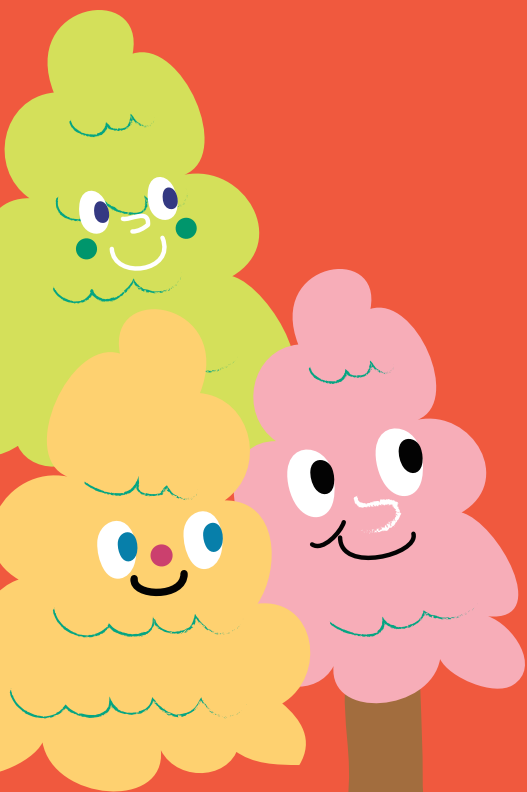
하였기에, 우리 반 정직왕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05

배려





Part 1

알아보기

1 배려란 무엇일까요?

“공공을 위한 배려”

배려는 나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람까지도 돕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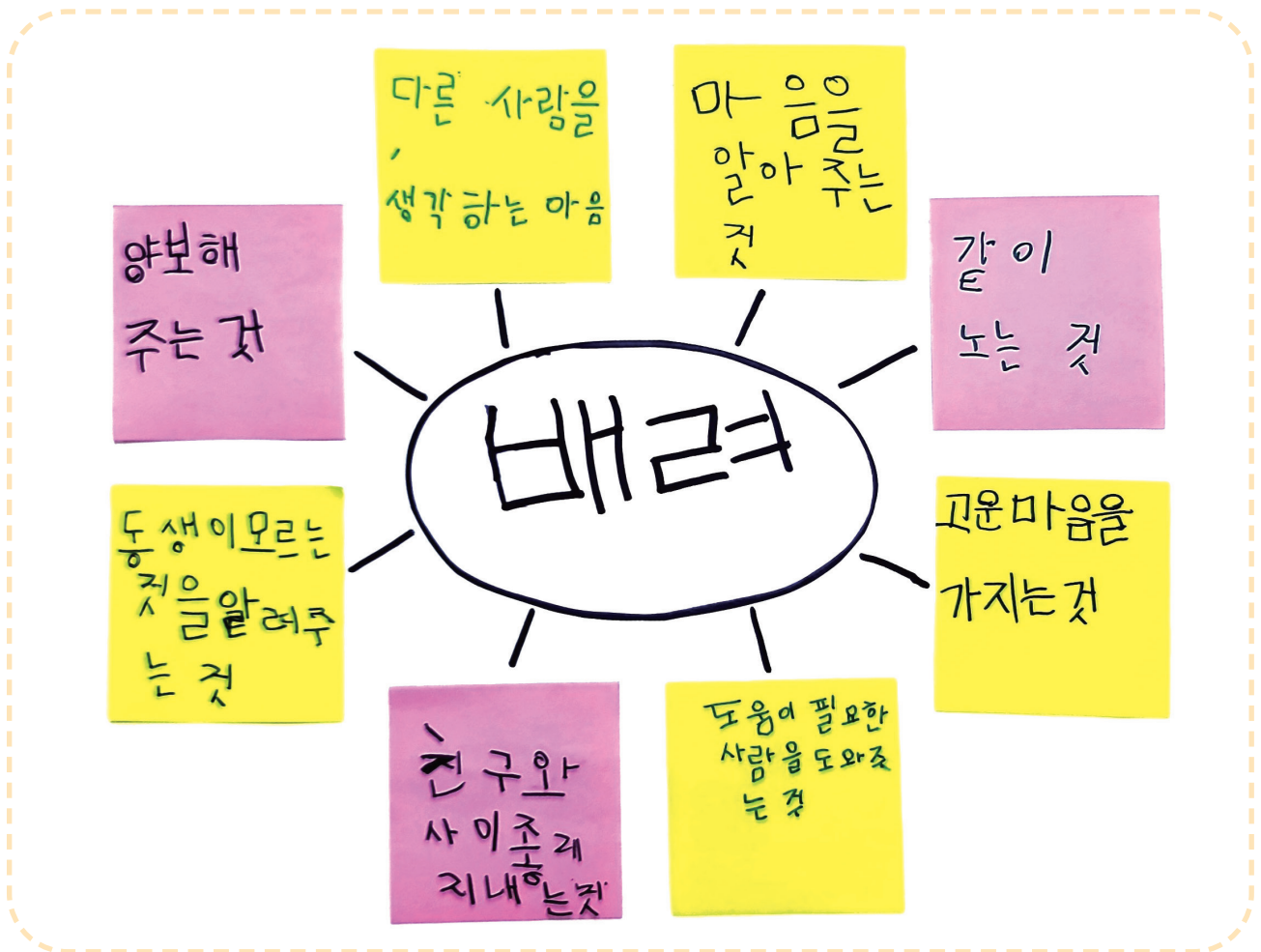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배려에 대한 생각 모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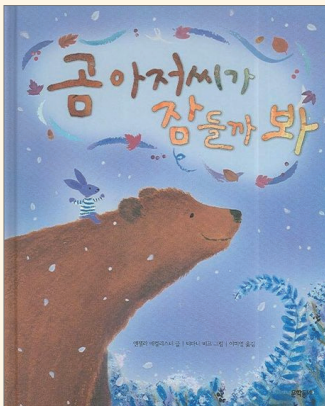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배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 교사3: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해요.
- 교사4: 아껴주고 소중히 대해 주는 것도 배려 아닐까요?
- 교사5: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아들의 생각 •



3 배려와 관련된 도서



- 제목: 곰 아저씨가 잠들까봐
- 출판사: 문학동네
- 글/그림: 앤젤라 매컬리스트어/티파니 비크
- 내용: 추운 겨울날 토끼와 곰이 서로를 생각하며 도와주는 내용



Part 2

동화감상 (샌드아트)



애기똥풀 병원



- 정다인

해가 방긋 솟은 아침 해바라기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팔을 주욱 폈어요. 바람 아가씨도 기분이 좋은지 해바라기 아주머니의 볼을 스치며 인사했어요.

“해바라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정말 시원하고 좋은 날이에요.”

“호호호, 그렇죠? 오늘은 바람 아가씨의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더 아름답네요.”

즐겁게 뺨을 들던 바람 아가씨가 해바라기 아주머니의 발밑을 보며 말했어요.

“해바라기 아주머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 누군가 아픈가 봐요.”

어디선가 ‘음, 음, 음...’ 하는 신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머 해바라기 아주머니 발밑을 보세요. 노란 애기똥풀이 이상해요.”

“저런, 어찌죠? 나는 애기똥풀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많이 아프니? 눈 좀 떠보렴.”

애기똥풀이 해바라기 아주머니를 올려다보다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람 아가씨와 해바라기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바람 아가씨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친구들을 불렀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애기똥풀이 쓰러졌어요. 모두 나와서 도와줘요.”

나무 등지에서 비둘기 아저씨가 푸르릉 날아 나왔어요. 멀리 있던 참나무 할아버지가 초록 이파리를沙沙沙 흔들었어요. 다람쥐 동동이는 물을 먹다 말고 달려왔어요. 모두 쓰러진 애기똥풀을 빙 둘러서서 말했어요.

“애기똥풀아, 정신 차려. 눈을 좀 떠보렴.”

“쫓쫓쫓, 눈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어찌면 좋아요.”

“아휴. 어디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이를 어쩔담. 큰일이구나.”

모두들 걱정스럽게 애기똥풀을 내려다보았어요.

줄무늬 바지를 입은 다람쥐 동동이가 애기똥풀의 머리를 만져보며 말했어요.

“감기인가 봐요. 추워서 몸을 덜덜 떨고 있어요.”

“저런, 애기똥풀의 노란 얼굴이 아주 창백하구나.”

“그래, 큰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모두 의논을 해봐야겠어요.”

비둘기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해바라기 아주머니, 바람 아가씨, 비둘기 아저씨, 다람쥐 동동이가 머리를 모았어요. 참나무 할아버지도 초록 이파리를 흔들었어요.

“쭉다쭉다쭉다, 쭉덕쭉덕쭉덕, 끄덕끄덕끄덕.”

잠시 후 가만히 듣고 있던 참나무 할아버지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힘, 그러면 이제부터 애기똥풀 병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애기똥풀이 얼른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도록 해요!”

참나무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렸어요.

“허허허, 저런 저런. 빠르기도 하구만. 동동이 녀석은 어찌나 빠른지 발이 안 보이네, 그려.”

“그러게요. 나는 여기서 애기똥풀을 간호하면서 따스한 햇볕을 쬐어 주어야겠어요.”

해바라기 아주머니는 애기똥풀을 다정한 눈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꽃잎을 아래로 접고 줄기를 살짝 비쳤어요. 그늘졌던 애기똥풀의 얼굴에 햇살이 가득 비추었어요. 노란 애기똥풀이 몸을 조금 뒤척였어요.

풀숲을 가로질러 먼저 달려온 다람쥐 동동이가 말했어요.

“헉헉, 저는 숲속에서 제일 달콤한 샘물을 떠왔어요. 이 샘물엔 숲속 친구들의 따뜻한 숨결이 다 녹아 있어요.”

다람쥐 동동이가 도토리 뚜껑에 담긴 맑은 샘물을 애기똥풀의 뿌리에 부어주었어요.

“호호호, 애기똥풀의 몸이 금방 따뜻해지겠구나.”

해바라기 아주머니가 웃으며 애기똥풀에게 햇살을 조금 더 쬐어 주었어요.

“하하하, 내가 조금 늦었네. 우리 동동이가 일등으로 왔구나.”

비둘기 아저씨가 열심히 날갯짓을 하며 날아왔어요. 날개 위에는 가족들의 깃털을 모아 짠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포근한 깃털 이불로 애기똥풀을 덮어주고 아저씨는 날개로 다독여 주었어요.

옆에 있던 바람 아가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는 애기똥풀에게 비밀 주문을 걸어줄게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애기똥풀에게 힘을 줘요.”

모두 손을 잡자 바람 아가씨는 따뜻한 입김을 뿜으며 애기똥풀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애기똥풀아, 어서 깨어나렴. 네가 노랗게 피어있으면 숲에 작은 등불이 켜질 거야. 너의 노란 꽃잎을 볼 때마다 우린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힘을 내렴.”

참나무 할아버지는 수만 개의 초록 이파리를 흔들며 음악을 연주했어요. 햇살과 바람과 물과 음악이 따뜻하게 애기똥풀을 흔들며 깨웠어요. 그러자 애기똥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동이도 애기똥풀의 작은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음, 음. 동동이 오빠.”

눈을 뜬 애기똥풀이 동동이를 보고 웃었어요.

“애기똥풀이 깨어났어요. 이제 다 나왔나 봐요. 야호! 야호! 야호!”

동동이도 폴짝폴짝 뛰자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애기똥풀이 기지개를 켜며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게 온 숲이 저를 꼭 껴안아 주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숨결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모두 모두 고마워요.”

“호호호! 그럼, 그럼. 네가 빨리 나오라고 온 숲이 너를 꼭 껴안아 주었다.”

“허허허, 애기똥풀이 깨어나서 다시 우리 숲이 환해지겠구나.”

참나무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웃으며 애기똥풀의 볼에 살며시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 <https://youtu.be/CqaXxmwkalm> |



활동 1

애기똥풀에게 주고 싶어요

배려

애기똥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을 그려보세요.



활동 2

배려하는 마음 고운 마음

배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세요



장난감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어요



친구가 슬플 때
위로해주세요



우산이 없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써요



친구를 놀리고
괴롭혀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세요



06

책임





Part 1

알아보기

1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내 몫을 다하는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된다.

※출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의 6가지 덕목(국민권익위원회)

2 책임에 대한 생각 모으기

● 교사들의 생각 ●

- 교사1: 선생님들은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사2: 맡은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사3: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 교사4: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 교사5: 약속과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 교사6: 내가 해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 유아들의 생각 •



3 책임과 관련된 도서



- 제목: 화분을 키워 주세요
- 출판사: 웅진주니어
- 글/그림: 유진 자이언/마거릿 블로이 그레이엄
- 내용: 휴가를 떠난 이웃을 대신해 책임감을 가지고 화분을 키워 준 토미의 이야기



Part 2

동화감상 (샌드아트)



존스야
댐을 떠나지마

- 조영란

양양이 마을은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일곱 고개를 넘어가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이어서 늘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양양이 마을에는 빗물을 가둬 사용하는 큰 ‘샘물 댐’이 있지요. 샘물 댐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침 해님이 뺨뾰히 얼굴을 비추면 작은 별들이 후두둑 쏟아지듯 보석처럼 반짝거리기도 하고, 한낮이 되면 산 그림자 길게 누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면 개구리들이 나와 연꽃잎 징검다리 놀이로 폴짝폴짝 뽀박질 놀이를 즐긴답니다. 가끔씩 바람이 조용해지면 토끼구름, 나비구름이 쉬어가며 거울을 보듯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다듬기도 해요.

“오늘은 내 귀가 너무 짧아!”

“나도 더듬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 바람이 오면 다시 만들어야겠어.”

살랑살랑 바람 소리가 들리자 토끼구름, 나비구름은 긴 귀와 더듬이를 만들면서 등실 두등실 떠나갑니다.

‘쿵, 쿵, 쿵, 쿵.’ 무슨 소리일까요?

샘물 댐 문을 관리하는 고릴라 존스의 발자국 소리예요.

아주 오래전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샘물 댐 사과나무 아래서 울고 있던 존스를 이곳에 살게 해 준 것은 양양이 마을의 토미 엄마, 아빠였지요. 그때부터 힘이 센 고릴라 존스는 샘물 댐 문지기가 되었고 덕분에 양양이 마을의 웅덩이는 늘 물로 가득 차 있어서 텃밭도, 집에서 필요한 물도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오늘도 존스는 댐 속으로 수옥 들어가더니 댐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왈왈’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꼬불꼬불 물길을 만들며 흘러가더니 양양이 마을 웅덩이를 가득 채워줬어요.

“토미야, 동생과 함께 텃밭에 물 줘야지.”

“네, 엄마.”

“오, 이것 좀 보구려. 벌써 옥수수에서 수염이 나고 있네.”

잡초를 뽑으시던 아빠가 옥수수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와, 신난다.”

아삭아삭 채소와 고소한 옥수수 그리고 파삭파삭 감자를 먹을 생각을 하니 토미는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영차, 영차.”

토미와 동생 뿌유는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웅덩이 물을 길어 왔어요.

“감자야, 너도 시원하게 마셔.” 토미가 말하자,

“상추야, 너도 시원하게 마셔.” 동생 뿌유도 말했어요.

양양이 가족 텃밭에 채소들도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니 기분이 좋은 듯 무럭무럭 자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어서 와 보세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다들 웅덩이로 갔더니 웅덩이 물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샘물 댐이 말라가고 있나?”

엄마 아빠의 걱정에 토미와 뿌유는 힘들었지만, 비탈길 독을 타고 댐으로 올라갔어요.

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아침 햇살이 주는 빛을 안고 여전히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 댐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어. 뿌유야, 우리가 존스를 만나봐야겠어.”

토미는 존스를 찾아갔어요.

“존스! 존스!” 존스는 집에 없었고 토미와 뿌유는 존스를 찾기 위해 댐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때 사과나무에 붙여진 존스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양양이 마을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찾고 싶어요.”

존스가 떠나버리자 양양이 마을 웅덩이는 계속 말라갔고 마실 물까지 없어지고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양양이 마을 양들은 모두 양동이를 들고 댐 물을 길어 올 수밖에 없었지요.

먼 곳에 있는 댐의 물을 길어 오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양들이 한 줄로 서서 양동이를 전달! 전달! 양동이 물은 출렁출렁 밖으로 튀어 나갔어요.

이렇게 세 밤이 지나도 존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물을 길어 쓰던 양들은 지쳐 쓰러지게 되었어요. 음식이 저장된 냉장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먹이까지 부족하게 되었지요.

한편 길을 떠난 존스는 한 고개를 넘고 두 고개를 넘고 다섯 고개를 넘어도 엄마,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존스는 양양이 마을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웅덩이 물이 마르면 어떡하지? 음식들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얼른 가서 댐 문을 열어줘야 할 텐데...’

특히 토미의 엄마, 아빠에게 더 미안했죠. 어릴 적 사과나무 아래에 있던 자신을 보살펴 주었고 양양이 마을에 살게 해 주신 엄마, 아빠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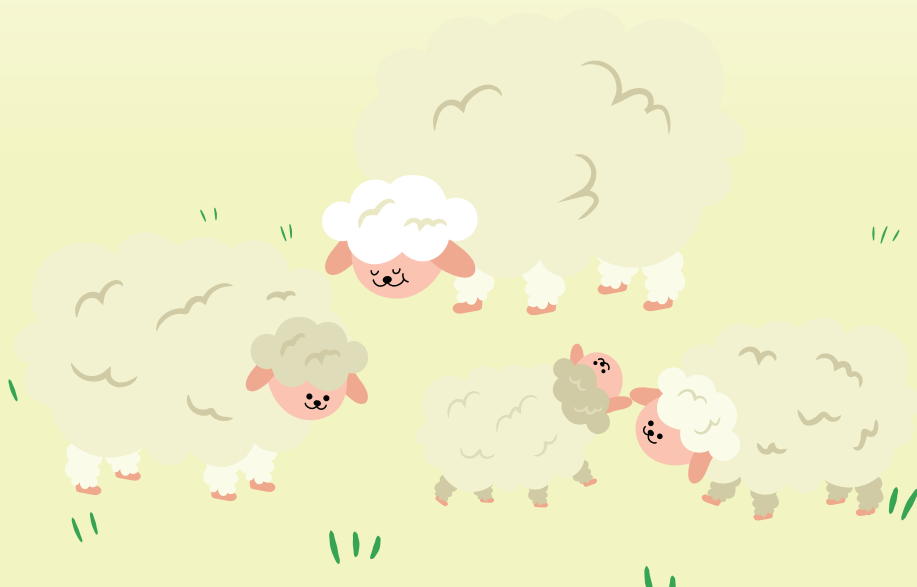
‘귀뚜, 귀뚜’ 귀뚜라미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었어요. ‘쿵, 쿵, 쿵, 쿵!’ 드디어 존스가 돌아왔군요. 마을을 둘러보던 존스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쿵, 쿵, 쿵, 쿵!’ 달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양양이 마을은 ‘야호!’, ‘우와!’ 환호 소리로 가득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을 웅덩이에는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었고 텅 비어 있던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두 팔을 힘껏 벌리고 서 있는 존스를 발견했죠.

“존스! 오, 존스!”

양양이 마을 양들은 모두 달려가 존스에게 안겼어요. 아기 양들은 존스의 발목과 발등을 껴안으며 반가워했고 엄마, 아빠 양들은 털이 부슬부슬한 존스의 팔에 안겨 얼굴을 부비며 좋아했죠. 토미의 엄마, 아빠는 작은 빨로 존스의 등을 긁어 주며, 싱글벙글 양들을 바라보던 존스도 큰 입으로 미안한 듯 씩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 <https://youtu.be/t7yjN6rgl3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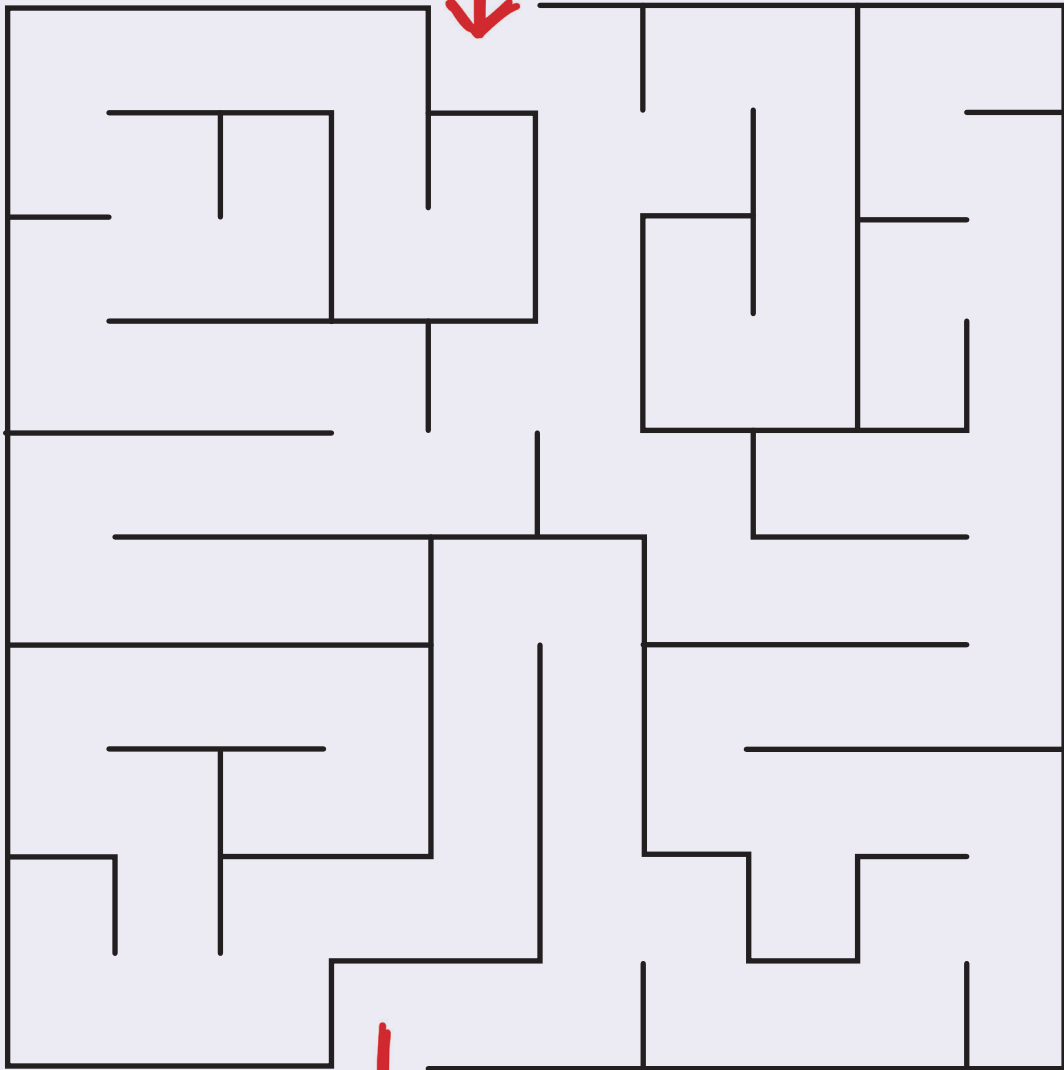
활동 1

존스야 댐을 지켜줘

책임



존스가 댐을 지킬 수 있도록 댐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세요.



활동 2

책임을 실천해요

책임



내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동그라미 해 보세요.



내가 사용한 놀잇감을 정리정돈 해요



오늘의 도우미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림을 완성해요



내가 할 일은 스스로 해요

제 **작**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참 **여** 정경애 한울유치원 원장
이혜선 양덕솔빛유치원 원장
조영란 토월유치원 원장
임영순 선진유치원 원감
정다인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교육연구사
권유란 장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고운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양재호 거제유치원 교사
조유림 양덕솔빛유치원 교사
최소영 선진유치원 교사
최유정 산청유치원 교사
허은정 물금유치원 교사

이 책은 경남교육청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수 없으며,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료를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를 위한
청렴교육 도움자료

